

지역 매아리

정읍시 - 서울대, 사범대학  
협력사업 창의과학캠프 열려

정읍시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의 협력사업인 '창의과학캠프'가 최근 서울대학교에서 열렸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이 주관한 '창의과학캠프'에는 정읍지역 중학교 2학년생 30명이 참여했다. 캠프에서는 탐구 활동 중심의 과학프로그램과 함께 천문관측과 국립과천과학관 견학이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창의과학캠프를 통해 학생들이 과학적 호기심 충족은 물론 세상을 바라보는 폭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창의과학캠프'는 시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간의 협약으로 2018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매년 중학교 2학년 학생 40여 명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 교수와 조교, 강사 등이 참여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심성수련캠프 실시

정읍시는 지역 내 중학생 4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1박 2일) '멋진 우리 심성수련캠프'를 실시했다.

캠프는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이 올바른 품성 함양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 만족과 성취감을 느끼고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캠프에서는 마음을 사교하는 구매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멋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품성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활동에서 청소년들은 '가장 사고 싶은 마음'으로 정직과 배려, 자기조절과 같은 덕목을 원했다.

반면 '가장 싫고 싶은 마음'으로는 욕하고 화내는 마음과 짜증, 미투는 마음, 욕하는 마음 등을 꼽으며 품성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통해 새롭게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다짐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며 뛰어놀고 사춘기 성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을 알아보는 '사춘기 수첩 만들기' 활동도 체험했다. 사춘기 몸과 마음의 변화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 멋진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프로그램으로 건전한 성 의식을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됐다.

이 캠프에 참여한 이소은 학생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진행되는 캠프에 꼭 참여하고 싶었는데 올해 좋은 기회가 되어 참여했다"며 "또래 친구들과 소통하고 중학교 시절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게 된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청소년들이 타지에서 정읍을 홍보하며 호연지기를 기르는 '동지 탈출 부산 자유여행'(8.11~12)을 추진하는 등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제11회 부안 '님의 빵' 축제가 오는 8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동안 부안댐 광장에서 열린다.

부안 '님의 빵' 축제 내달 2일 팡파르

전시판매 · 체험장 · 특별공연 · 노래자랑 등

해풍을 맞고 자란 전북 부안의 참빵을 널리 홍보하기 위한 제11회 부안 '님의 빵' 축제가 오는 8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동안 전북부안 부안댐 광장에서 소박하게 열린다.

부안서림신문(대표 이석기) 주최, 부안군(군수 권익현)과 케이워터 부안권지사(단장 이규환)가 후원하고, 전북대향토건강식품명품화사업단과 부안수협, 한국해상풍력기후연구소가 후원하는 '님의 빵' 축제는, 부안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부안에서 생산되는 빵 관련제품의 전시판매는 물론 각종 체험장을 마련, 보고 즐기는 축제로 준비되고 있다.

부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와 부안소방본(대표 황강일), 남부안농협(조합장 최우식)이 주최되어 빵 관련 20여개 업체

100여종의 식품을 전시 홍보하게 될 '님의 빵' 축제는 이곳을 찾은 피서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한 각종 이벤트를 마련해 빵 제품을 선사할 계획이다.

얼음썰미 빵주걱기와 빵주스 빨리먹기 등 '추억 만들기'로 진행되는 각종 이벤트 경기는 지난해와 같이 이곳을 찾은 피서객들의 폭소를 자아내게 할것으로 기대가 되고있다.

뿐만 아니라 '님의 빵' 축제는 보고 듣는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 광장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축제 기간중 매일 오후 3시부터 특별공연과 가족 노래자랑이 펼쳐져 보는 즐거움을 보태게 된다.

한편 내달 2일부터 열리는 '님의 빵' 축제는 전국에서 피서철을 맞이해 부안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부안' 하면 곧 전혜의 관광지

원과 어우러진 '빵(오디)'을 연상시키고 각인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열한번째로 준비되고 있다.

오래 전부터 빵과 관련한 각종 건강식품과 먹거리가 개발되어 부안의 특산품으로 상품화 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국민들에게는 '부안의 빵'은 생소하기만 하다고 보고, '부안의 빵'을 전 국민에게 각인시키고,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기위한 목적으로 매년 마련되고 있다.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이석기 서림신문 대표는 "별써 열한번째 치러지는 축제이지만 작은축제인 만큼 장소와 적은예산 등으로 인한 행사준비 미흡, 프로그램 부족 등의 각종 현상이 예상된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해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 발전된 행사로 만들어 가기위한 걸음마로 생각하며, 부안군민의 관심만으로도 성공할수 있음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부안=김석진기자

선운산의 아름다운 사계절 벽화 관광객 눈길 사로잡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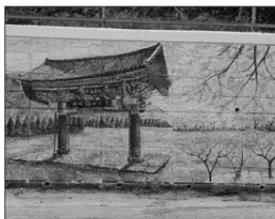
선운산의 사계를 담은 대형벽화가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29일 고창군 선운산공원관리팀에 따르면 공원주차장 옆 100여m의 황량한 시멘트 옹벽이 화려한 꽃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로 변신했다.

이는 선운산공원팀이 3개월에 걸쳐 전문가, 상가 주민들과 함께 선운산의 계절별(동백, 삼림계곡, 꽃무릇, 단풍, 설경, 사할) 테마를 주제로 벽화를 그렸다.

여름휴가를 위해 선운산을 찾은 한

관광객은 "선운산 벽화그림이 주차장의 분위기를 신선하게 변화시켰다"며 "선운산을 밟는 순간부터 선운산의 아름다운 절경을 느낄 수 있어 산뜻한 마음으로 관광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고창군 산림공원과 신동경 과장은 "올 여름휴가에 시원하고 깨끗한 선운산 도솔계곡을 찾는 방문객들이 주차장의 벽화를 통해 선운산의 아름다운 사계절을 한눈에 감상하고 힐링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



다"며 "한반도 첫수도 고창의 선운산을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점검 등에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인기 만점!

정읍시청 분수광장, 그네 의자 · 테이블 · 경관조명 등 설치 쉽터 조성

정읍시청 앞 분수광장이 사계절 도심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는 지난 5월부터 시청사 분수광장 주변에 디자인 의자와 테이블, 그네 의자 등을 설치해 쉽터를 조성했다.

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함으로써 시청사의 색다른 매력을 선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시청을 가족들과 편하게 산책하거나 도심 내 데이트 명소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시각적 아름다움을 통해 시민들에게 추억이 깃들 수 있는 야간 불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어 시청사를 찾는 시민들에게 만족도가 높다.

특히, 본격적인 열대야가 시작된 여름밤 안전하고 편안하게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신선한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으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분수대 근처에서 시원한 물줄기를 보며 잔디에서 뛰어노는 아이들도 자

주 볼 수 있다. 시는 매일 일몰 시부터 자정까지 계절에 맞게 조명 점등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상동에 거주하는 시민 손모씨(39)는 "시는 곳 근처에 가족들과 휴식도 취하고 산책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좋다"며 "지속적으로 차양막 등 편의시설이 보완돼 시청사가 정읍지역의 랜드마크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진섭 시장은 "시청광장 야간 경관조명 설치로 청사가 주민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열린 청사 운영과 청사 이미지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청사 야간 경관조명으로 청사를 새롭게 연출함으로써 야간 시야 확보를 통한 안전성과 외부 침입으로의 보안성 등 다양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한근호 부안부군수, 침수피해 긴급복구 등 현장행정 돌입

부안군은 지난 27~28일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2차례의 호우주의보 발령과 함께 부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시키고, 피해발생에 따라 긴급 피해복구 등 급박한 주말을 보냈다고 밝혔다.

27일~28일간 부안군 평균 강우량 74.5mm에 최고 백산면 116.5mm가량의 비가 내렸으며, 집중호우가 쏟아져 부안을 일원 도로변 및 건물 주차장 6개소 침수와 백산면 외 3개면에 25농가 37.03ha의 농경지 침수피해와 주택, 축사 등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한근호 부안군 부군수는 부안읍 시

내 하수도 사업장 외 4개소 공사현장과 피해농지, 오리축사 등을 방문 폭우 피해지역 빠른 복구를 지시했으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부안군에서는 그 동안 하천, 배수로 등을 잘 정비하여 집중호우 피해를 최소화 시켰으며, 이번 집중호우를 계기로 다시 한번 수해관련 현장을 재 정비하여 향후 태풍 및 집중호우에도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민방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 연지봉사대, 경로당 어르신 위문방문 펼쳐

정읍시 연지봉사대(대장 허종성)가 29일 지역 내 경로당 14개소에 수박 14통과 수육용 돼지고기 28kg을 전달했다.

연지봉사대 대원과 연지동 주민센터 직원들은 경로당 어르신을 찾아뵙고 수박과 돼지고기를 드렸다. 허종성 대장은 "계속되는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이 수박과 수육을 드시고 건강하게 여름을 이겨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과 복지사각지대의 소외계층에 관심을 기울여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읍남 동장은 "자발적으로 조직된 연지봉사대와 함께 힘을 모아 소외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을 지속적으로 발굴, 맞춤형 복지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지봉사대는 지난 2015년 소수의 대원으로 결성됐다. 현재 19명의 대원이 활동하고 있다.

대원들은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을 발굴해 맞춤형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더불어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maeil.com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It features several bottles of wine, gift sets, and a cartoon bear mascot.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It lists various gift sets with prices and quantities.